

<http://doi.org/10.5253/kpac.2023.52.7>

죽록(竹麓) 윤희관(尹孝寬) 한시에 나타난 지향 의식

박명희*

차 례

1. 머리말
2. 윤희관의 삶과 한시
3. 한시에 나타난 지향 의식
4. 지향시의 특징과 의의
5.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전남 강진 문인 윤희관(1745~1823)의 한시에 나타난 지향 의식을 살핀 뒤 지향시의 특징과 의의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윤희관이 지은 한시 작품은 『죽록유고』 권1에 총 463제 635수가 전해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635수의 한시 작품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창작한 시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은 결과적으로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기까지 살았던 호남 지역 한 문인의 한시에 나타난 지향 의식을 통해 지향시의 특징과 의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윤희관의 삶과 한시 작품에 대해 정리하였다. 윤희관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출생과 학문 수련기(1~32세), 두 번째 관직생활기(33~69세), 세 번째 퇴사와 귀향(70~79세)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635수의 한시 작품을 종류별로 나눠보았는데, 칠언절구와 칠언율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윤희관 한시에 나타난 지향 의식을 살폈다. 지향 의식을 언급하기 이전에 윤희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관의 한시 작품 중에 어떤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창작한 시로, 경계시와 농촌시, 현실 비판시, 풍물시가 있다는 것을 찾았다. 이 네 종류의 시는 각각 지향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경계시를 통해서는 자손들을 훈육하였고, 농촌시를 통해서는 농촌 삶의 실상을 보고하였으며, 현실비판시를 통해서는 애민의식을 드러내었고, 풍물시를 통해서는 호남의 지역 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을 밝혔다.

윤호관의 경계시, 농촌시, 현실비판시, 풍물시 등의 한시 작품은 대체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작시로, 그 때문에 사실적(寫實的)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윤호관의 <호남시>는 지명한시의 일종으로서, 이전 고용증(高用楫)의 <남정가(南征賦)>와 후대에 나온 가사 <호남가(湖南歌)>의 계보를 잇는 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의 또한 작지 않다 판단하였다.

핵심어 : 죽록 윤호관, 『죽록유고』, 해남윤씨, 경계시, 농촌시, 현실비판시, 풍물시.

1. 머리말

본 논문은 윤호관(尹孝寬, 1745~1823)의 한시에 나타난 지향 의식을 살핀 뒤 지향시의 특징과 의의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윤호관의 문학 작품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 성과물을 낸 사람은 정익섭이었다. 정익섭은 윤호관의 가사 작품 <소거가(纒車歌)>를 연구한 뒤 1992년 「죽록 윤호관의 纒車歌攷」라는 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¹⁾ 정익섭은 이 논문에서 우선 가사 <소거가>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힌 뒤에 윤호관의 문집 『죽록유고(竹麓遺稿)』의 해제와 작가 생애를 정리하였다. <소거가>는 물레의 제작 과정과 실을 자아 베를 짜고 옷을 만드는 과정을 노래한 것이다.²⁾ 이후 2012년 김신중은 그의 논문 「남도고시가의 작품과 연구 동향」이라는 논제의 <표2> ‘남도의 가사 작가와 작품’란 23번에서 윤호관의 <소거가>를 소개하고 있을 뿐 구체적

1) 정익섭, 「죽록 윤호관의 纒車歌攷」, 『樂隱姜鈴變先生華甲紀念論叢』, 창학사, 1992, 141~162쪽.

2) 정익섭, 위의 글, 141쪽.

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³⁾

윤효관의 문학 작품은 이처럼 가사 <소거가>로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윤효관의 문학적 창작 능력을 살피려한다면, 가사 <소거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 현재 윤효관이 남긴 시와 문장은 그의 문집 『죽록유고』에 정리되어 있다. 이 문집은 총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에 총 463제 635수에 달하는 한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⁴⁾ 작품 수는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635수를 두고 양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 해도 635수는 적지 않은 작품 수라 말할 수 있다. 윤효관은 그의 나이 33세(1777, 정조1) 때 문과 3위로 합격한 이후 부모님 상과 대략 1년 정도의 유배 생활을 한 것을 제외하면 30년 넘는 세월 동안 관직 생활을 하였다. 즉, 문학 작품 창작에 몰두하기 보다는 관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5수라는 적지 않은 분량의 한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일상 생활하던 중에도 창작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윤효관이 남긴 한시 작품에 나타난 지향 의식을 살핀 뒤 지향시의 특징과 의의를 구명하고자 한다. 작품을 통해 어떤 지향 의식을 드러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주제를 드러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윤효관이 남긴 한시 작품 635수를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창작한 것들이 있다. 물론 이럴 경우, 문학성은 유보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윤효관 한시의 중요한 특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

3) 김신중, 「남도고시가의 작품과 연구 동향」, 『한국시가문화연구』 2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2, 96쪽.

4) 필자가 윤효관의 문집 『죽록유고』 권1을 살핀 결과, 총 463제 635수의 한시 작품이 수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올려진 『죽록유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품 수를 총 898수라 하였다. 898수와 635수는 무려 263수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까닭을 잘 알 수는 없다. 한편, 정익섭은 전개논문, 143쪽에서 『죽록유고』 권1에 실린 한시 작품 수의 내역을 오언절구 29수, 칠언절구 152수, 오언율시 107편, 칠언율시 190편 등 도합 479수라 하였다. 이 또한 필자가 낸 수치와 차이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까닭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다. 본 논문은 결과적으로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기까지 살았던 호남 지역 한 문인이 남긴 한시 속 지향 의식을 통해 지향시의 특징과 의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윤희관의 삶을 정리한 뒤 한시의 특징을 언급하려 한다.

2. 윤희관의 삶과 한시

윤희관은 1745년(영조21) 현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보동마을에서 아버지 윤덕언(尹德彦)과 어머니 장흥위씨(長興魏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⁵⁾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방계 후손으로, 자는 울지(栗之)이고, 호는 죽록(竹麓)이며, 본관은 해남(海南)이다. 필자는 윤희관의 일생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려 한다.

첫 번째 출생과 학문 수련기 : 1~32세

두 번째 관직생활기 : 33~69세

세 번째 퇴사와 귀향 : 70~79세

우선 첫 번째 출생과 학문 수련기의 윤희관의 삶은 어떠했을까? 세상에 태어난 윤희관의 외모는 남다른 면모가 있어 살결은 얼음과 눈처럼 투명하였고, 눈은 밝은 별과 같았으며, 정신은 맑았다. 8세 때부터 친척을 통해 공부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웅대하고 진퇴하는 절차가 자연히 법도에 맞아 종족들이 귀하게 여겼다. 9세 때 백일장 대회에 구경 갔다가 사또가 윤희관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시를 짓게 하여 1등을 하니, 그 명성이 점차 퍼져나갔다. 18세 때 임계훈

5) 윤희관의 삶은 『죽록유고』 권1에 있는 <술회> 시, 권2에 수록된 <행장>과 <遺事>, <旅遊日錄>, 그리고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2013년에 출간한 『조선의 관리, 죽록 윤희관의 일생』에 담긴 내용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林啓薰)의 딸과 혼례를 올린 뒤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23세 때 소과 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29세 때 문과 1차 시험에 낙방한 뒤 32세 때 복시(覆試)에 재도전해 합격하였고, 이듬해 33세 10월에 문과 3위로 합격하였다. 그리고 받은 직책은 종7품직인 사직서 직장이었다. 윤효관 집안은 대대로 강진 향촌에서 살아온 양반가이나 후대로 내려갈수록 문과 및 무과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윤효관은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닌 채 학업에 열중했는데, 마침내 문과 3위로 합격했으니, 그 기쁨은 컸다. 이와 관련해 『죽록유고』 권1 <술회(述懷)> 시 앞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은데, 문과에 합격한 뒤 금의환향했을 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少年志氣豪	소년 시절의 기질 호탕하여
妄擬取公卿	망령되이 공경되길 생각했지
卅載勤讀書	20년 동안 부지런히 글 읽고
三十入京城	서른 살에 한양에 들어갔네
決科如拾芥	과거급제 쉽게 생각 했더니
雁塔第三名	급제 이름 세 번째에 올렸네
直除社稷郎	곧바로 사직랑을 제수 받으니
責任亦非輕	책임 역시 가볍지 않아라
僕隸趨下風	종들은 다투어 뒤를 따르며
謂我最光榮	내 영광이 최고라 말한대
彩衣歸鄉里	색동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何如父母情	부모님 마음은 그 어떠했겠는가
喜狂妻與子	처자식들 미친 듯이 기뻐하고
歡倒弟及兄	형제들도 기뻐 어쩔 줄 몰라 한다
笙歌悅親戚	친척들 기뻐하며 풍악 올리는데
杯酒掃先塋 ⁶⁾	선영에 성묘 가서 술잔 올렸다

(이하 생략)

6) 尹孝寬, 『竹麓遺稿』 卷1 <述懷> 일부분.

이제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생활기가 시작되었다. 사직서 직장에서 시작한 벼슬은 이후 퇴사하기 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시작하는 나이와 함께 적으면 다음과 같다.

사직서 직장(33세), 가주서·성균관 전적(34세), 의릉 령·병조 좌랑(37세), 공조 정랑·병조 좌랑·현릉 령(38세), 홍충도 도사(39세), 성균관 전적(43세), 사헌부 감찰(44세), 종묘서 령·사헌부 감찰·김천도 찰방(45세), 성균관 전적(52세), 예조 좌랑·예조 정랑·병조 좌랑(55세), 성균관 사예(58세), 사헌부 장령(59세), 사간원 정언(60세), 용양위 부호군·통정대부(61세), 첨지중추부사·병조 참의·병조 참지(62세), 충무위 부사정·용양위 부호군·영월 부사(63세), 용양위 부호군(65세), 충무위 부사정·분병조 참의·용양위 부호군 및 조사오위장(67세)

이상과 같이 윤희관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벼슬살이를 하면서 다양한 관직을 역임하였다. 한편, 관직 생활을 하던 중에 윤희관이 돋보인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우선 37세(정조5) 때의 일이다. 윤희관이 어느 날 문신의 전강(殿講)에 참여했는데, 은미한 곳까지 파헤쳐서 조금도 막힘이 없었다. 그래서 이를 본 정조(正祖)가 대단히 칭찬하며 “해석이 반드시 시의(時宜)에 적중하니 진정한 강관(講官)이다.”라고 말 한 뒤 어필로 윤희관의 성명을 친히 전벽(殿壁)에 쓰고, 당시 고관(考官)인 체제공(蔡濟恭)에게 “꼭 탁용(擢用)하고자 한다.”라 말하였다. 체제공은 누구인가? 당시의 재상이며 남인(南人)의 우두머리가 아닌가. 윤희관은 이후 52세(정조20) 때 체제공의 문하에 출입하며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는다. 그리고 체제공은 임종에 임하여 제자 권엄(權儼)과 이익운(李益運)에게 부탁하기를 “윤희관의 군세고 정직한 지조와 확고한 자질은 그 집을 부끄럽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늙도록 낭직(郎職)에 잠겨서 나그네 신세로 오랫동안 고생하니 안타깝다. 제공들은 끝까지 돌봐주어 내 말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였다. 바로 윤희관이 벼슬살이 한답시고 오랫동안 객지 생활 한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체제공의 이러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체제공

이 세상을 뜬 뒤 권엄은 자신의 녹봉을 떼어 주거나 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윤효관을 도와준다. 그리고 윤효관도 이에 보답하듯이 권엄이 세상을 뜨자 제문과 만사를 지어 냈을 위로하였다.

그 다음 윤효관은 그의 나이 59세(1804, 순조3) 때 <진사조소(陳四條疏)>를 올린다. 당시 윤효관은 사헌부 장령으로 있었는데, 중요 정책 네 가지를 들어 소장(疏章)을 작성한 것이다. 윤효관이 말한 네 가지 정책은 첫째, 성현의 학문에 힘쓸 것, 둘째 백성의 어려움을 구원할 것, 셋째 언로(言路)를 개방할 것, 넷째 기강을 떨칠 것 등이다.⁷⁾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뜬 뒤 순조가 왕위에 오르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윤효관은 나라가 좋은 정책을 펴서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비록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도 윤효관이 관원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윤효관은 불의에 맞서 싸우기도 하였다. 윤효관은 그의 나이 60세 3월에 사간원 정언이 된다. 그리고 두 달 뒤에 도헌(都憲) 벼슬에 있던 권유(權裕)가 순조(純祖)의 국혼을 막고 희롱하자 윤효관은 5대신들과 연명하여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을 받은 순조는 정상(情狀)을 밝혀 권유에게 벌을 내렸는데, 또한 윤효관을 비롯 5대신들도 유배를 가게 되었다. 윤효관 등이 올린 상소문에 대왕대비 정순왕후의 조카 이름이 언급되었기 때문이었다. 윤효관이 유배명은 받은 곳은 순천(順天)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3월에 유배가 풀렸고, 같은 해 6월에 용양위 부호군이 된다.

한편, 벼슬살이 하던 중에 난감한 때도 있었다. 윤효관은 63세(1807, 순조7) 때 11월 영월 부사가 되어 65세 12월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암행어사 이상우(李尙愚)가 서계(書啓)를 올려 강원도의 현감 또는 군수 등의 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의했는데, 그 안에 윤효관이 있었다. 즉, 영월부의 아전들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윤효관이 그것을 단속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윤효관은 결국 그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처벌이 있었던 것과 다르게

7) 윤효관이 올린 <진사조소>는 축약한 채 『조선왕조실록』 순조 3년(1803) 10월 12일 자에 실려 있다.

영월부의 관리와 백성들이 합심해 거사기적비(去思紀績碑)를 세웠다는 기록을 근거해보면, 윤효관이 부사로서 펼친 정책이 크게 부정적으로 평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효관은 영월 부사의 임기를 끝마친 뒤 부인 임씨(林氏)와 함께 영월 남쪽에 접한 충청도 제천 장락촌(長樂村)으로 이사해 우거한다. 그러면서 벼슬을 이어가다 68세 조사오위장을 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70세 초여름에 고향 강진으로 돌아가 만덕산(萬德山) 아래 소호정(蕭湖亭)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후 9년의 시간이 흐른 79세(1823, 순조23) 5월에 세상을 떠난다.⁸⁾

지금까지 윤효관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정리하였다. 윤효관도 전통 시대 다른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한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었는데, 이들 작품은 현재 『죽록유고』 권1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작품 수는 총 463제 635수에 달한다. 이러한 작품 수를 한시의 형식상 종류로 구분해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고체시 : 2제 2수

오언절구 : 27제 36수

칠언절구 : 136제 228수

오언율시 : 60제 78수

칠언율시 : 237제 290수

오언배율 : 1제 1수

이러한 정리를 통해 볼 때 현재 남아있는 작품은 근체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체시 중에서도 칠언절구와 칠언율시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죽록유고』 권1의 한시는 주로 종류별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를 쉽게 집계할 수 있다. 그런데 창작 시기와 상황 등을 밝힌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품 연표를 만들 수 없

8) 정익섭은 앞의 글, 147~150쪽에서 윤효관이 文才가 비상한 사람, 집념이 강한 사람, 情感의 사람, 經綸의 사람이라 하였다. 이 언급은 윤효관을 평가한 최초 내용으로 참조할 만하다.

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작품을 내용상 구분하는 일도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다. 윤효관의 한시 작품 635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전통 시대 다른 문인들이 창작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전통 시대 대다수의 문인들이 남긴 한시 작품의 경우, 차운시와 화답시, 영물시, 이별시, 누정 제영시 등이 있는데, 윤효관도 이러한 시를 대다수 남겼다. 따라서 내용상 구분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효관의 한시 작품을 면밀히 살펴보면, 내용 차원에서 남다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이것을 윤효관 한시의 특징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데, 이는 작품 수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다. 또한 그러한 시를 통해 지향 의식을 찾을 수 있다. 윤효관은 남과 다른 시를 지을 때 분명히 뚜렷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이는 곧 지향 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윤효관 한시의 내용상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경계시(警戒詩)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계’란 뜻밖의 사고나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여 단속한다는 의미를 지녔는데, 윤효관의 한시를 살펴보면, 시 제목에 ‘계(戒)’ 자를 넣어 시작한 작품이 간혹 있다. 필자는 이것을 ‘경계시’라 규정하고, 윤효관 한시의 첫 번째 특징으로 손꼽았다. 둘째, 윤효관은 농촌과 관련한 한시를 여러 편 남겼는데, 이것을 ‘농촌시’라 명명하고자 한다. 윤효관의 농촌시는 표현상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언급할 것이다. 셋째, 윤효관은 많은 편수는 아니지만 현실을 비판한 한시 작품을 남겼는데, 이 때문에 특징 속에 포함시켰다. 윤효관은 30년 넘게 관직 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인의 자세로만 일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은 현실비판시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벼슬살이하던 중에 지은 현실비판시가 있는데, 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윤효관은 호남 관련 풍물시(風物詩)를 남겼다. 이는 호남 사람으로서 지역 특성을 알았기 때문에 창작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풍속시를 한시 특성 속에 포함시켰다. 다음 장에서 각 한시별 지향 의식을 실제 작품을 통해 살펴려 한다.

3. 한시에 나타난 지향 의식

1) 경계시를 통한 자손 훈육(訓育)

윤효관은 지은 경계시는 <모든 손자에게 주어 술을 경계하다 [贈諸孫戒酒]>, <담배를 경계하다 [戒南草]>, <잡기를 경계하다 [戒雜技]>, <저자 보는 것을 경계하다 [戒觀市]> 등이 있다. 우선 <모든 손자에게 주어 술을 경계하다> 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狂藥令人志氣昏
醉鄉千古盡迷魂
三盃已伐中和氣
一斗渾忘禍福門
色必爲隣戕壽本
財從傾橐敗家源
百年持戒無雙飲
好把相傳我子孫⁹⁾

광약은 사람의 지기 어둡게 만드니
예부터 취향에선 혼이 다 희미해진다
세 잔에 이미 중화 기운은 무너지고
한 말에 화복의 문을 모조리 잇는다
색은 꼭 이웃해 목숨 치는 근본 되고
재물은 전대에서 털려 패가의 근원 된다
백년 간 지킬 경계로 술만한 것이 없나니
우리 자손들은 잘 지켜 서로 전하여라

윤효관은 수련 1구에서 술을 ‘광약’, 곧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이라 말하며, 사람의 지기를 어둡게 만든다 하였고, 2구에서 취향(醉鄉)에서는 혼이 다 희미해진다 하였다. ‘취향’은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경지를 말한다. 이어 함련에서는 술의 양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말하였고, 경련에서도 마찬가지로 술을 마심으로써 따라오는 결과를 언급하였다. 술은 색(色)이 함께하여 목숨을 치는 근본이 되고, 또 재물이 털려 집안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른다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에서 다시 한 번 자손들이 술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며 시 내용을 마무리 하였다.

그 다음에 불 작품은 <잡기를 경계하다>인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9) 尹孝寬, 『竹麓遺稿』 卷1, <贈諸孫戒酒>

雜技誤人不一方	잡기란 사람 그르침에 한 가지가 아니니
文房四友置尋常	문방사우까지 예사로운 것으로 여기더라
賭圍或失酬賓禮	노름에 빠지면 간혹 손님 대접 예를 잃고
爭道時成閱友場	방법 경쟁하다 때론 벗과 다툼 장소 된다
鬪葉青燈忘事務	등불 아래에서 투전하다 해야 할 일 잊고
呼盧白日典衣裳	대낮에 저포놀이 하다 옷을 저당 잡힌다
元來少數皆無益	원래 잡기류란 모두 이익이 없나니
都督投江萬古良 ¹⁰⁾	도독이 강에 던진 것은 만고에 잘했다

수련에서 사람을 그르치는 잡기는 한 가지가 아니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해야 할 종이와 붓, 먹, 벼루와 같은 문방사우까지 예사로운 것으로 여긴다 말하였다. 이어 함련과 경련에서 잡기에 빠지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언급하였다. 즉, 윤효관은 잡기에 빠지면 손님을 대접할 때 예를 잃어버리고, 벗과 다투기도 하며, 해야 할 일을 잊고, 옷을 저당 잡히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에서 잡기류가 모두 이익이 없다 말한 뒤 도독이 잡기를 강에 던진 것은 만고에 잘한 일로 칭찬하였다. ‘도독’은 형주 자사(荊州刺史)를 역임한 도간(陶侃)을 가리킨다. 도간이 어느 날 참모들의 술그릇과 노름 기구를 강물에 던지면서 “이것은 돼지를 키우는 비천한 자들이나 하는 노름이다. 저포(擄蒲)는 노자(老子)가 오랑캐 땅에 들어가 만들었고, 바둑은 요순(堯舜)이 어리석은 아이를 가르치려 만들었으며, 장기와 바둑은 주(紂) 임금이 만들었으니, 제군들이 나라의 인재로서 어찌 이런 노름을 즐기는가?”라고 나무랐다고 한다.¹¹⁾ 경련 1구에 나온 ‘투엽(鬪葉)’은 투전(鬪棧)과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 그림이나 문자 따위를 넣어 낫수를 표시한 종잇조각을 가지고 승부를 가리는 일종의 노름을 가리킨다. 또한 2구에 나온 ‘호로(呼盧)’는 나무로 만든 꽤 다섯 개를 가지고 하는 저포놀이를 말한다. 다섯 개의 투자마다 양면의 한쪽에는 흑색을 칠하고 송

10) 尹孝寬, 『竹麓遺稿』 卷1, <戒雜技>

11) 『古今事文類聚』 前集 卷42 伎藝部 <奕具投江>, 陶侃爲荊州 見佐史博奕 具投之於江曰 圍碁堯舜以教愚子 博殷紂所造 諸君並國器 何以此爲 將吏則加鞭朴曰 擄蒲者牧豬奴戲耳.

아지를 그렸으며, 다른 쪽에는 백색을 칠하고 핑을 그렸는데, 이 다섯 투자를 던져서 모두 흑색을 얻으면 ‘노(盧)’라고 외친 데서 온 말이다.

다음 경계시의 마지막 작품으로 <저자 구경을 경계하다>를 살펴보겠다.

人如雲聚酒如澗
壟斷元非士子登
網貨姦兒謀殺越
報嫌惡少任憑凌
渾稱班漢羞難免
爭價量衡辱易乘
多少危機來不測
休貪細利涉春氷¹²⁾

사람은 구름처럼 모이고 술은 강물 같나니
높은 언덕은 원래 선비가 오를 곳이 아니다
재물 그물질 하는 간사한 아이는 살인 피하고
양갓음하는 나쁜 소년은 멋대로 날뛰더라
양반 상놈 뒤섞어 부르며 부끄럼도 모르고
되길 저울질로 값을 경쟁해 욕설을 쉽게 한다
많은 위기는 예측하지 않은 데서 오나니
자잘한 이익 탐해 봄날 얼음 건너지 말라

윤효관은 우선 수련 1구에서 시장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원문 ‘주여민(酒如澗)’의 ‘민(澗)’은 전국 시대 제나라에 속했던 강물 이름인데, 『춘추좌씨전』 소공(昭公) 20년에 제나라 제후가 연회를 베풀고서 “민수처럼 술도 많고 산처럼 고기도 쌓였다. [有酒如澗 有肉如陵]”라고 말한 기록이 보인다. 또한 2수의 ‘농단(壟斷)’은 현재 이익을 독점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맹자』 <공손추 하>의 옛날에 어떤 사내가 시장 근처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고 싼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자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이어 함련과 경련에서 시장의 부정적인 면을 나열하였는데, 이 때문에 구경하지 말라는 뜻으로 언급했다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에서 재차 당부했는데, 특히 2구에서 “자잘한 이익 탐해 봄날 얼음 건너지 말라”는 언급을 새길 필요가 있다. 강에 얼음이 얼었는데, 봄이 되면 쉽사리 녹는다. 때문에 발을 딛게 되면 강물에 빠질 수도 있다. 즉, “봄날 얼음 건너지 말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뜻인데, 바로 『서경』 <군아(君牙)>의

12) 尹孝寬, 『竹麓遺稿』 卷1, <戒觀市>

“내 마음의 근심되고 위태로운 것이 마치 범의 꼬리를 밟은 듯, 봄날의 얼음 위를 걷는 듯하다. [心之憂危 若蹈虎尾 涉于春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2) 농촌시를 통한 삶의 실상 보고(報告)

윤효관이 지은 농촌시에 속한 작품으로는 <시골 아낙네를 읊다 [田婦詞]>, <농가 즉사 [農家即事]> 4수, <보리가 익었다는 소식을 듣고 [聞麥熟]>, <보리타작을 보며 [觀打麥]>, <전가 즉사 [田家即事]> 2수, <농가 즉사 [農家即事]>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우선 <시골 아낙네를 읊다>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荷鋤田婦覓枯松	호미 든 농가 아낙이 마른 솔을 줍나니
帶月歸時不整容	달빛 띠고 돌아갈 때 모습은 단정치 않아
兒子牢衣啼藜飯	아이는 옷자락 끌며 밥 달라 울음 울어
忙忙下杵麥難舂 ¹³⁾	바쁘게 절구질 하나 보리는 찼기 어렵네

이 작품은 농가의 아낙을 주인공으로 두고 지은 것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농가 아낙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며 내용을 적었다. 농가 아낙은 호미를 들고 있으며, 마른 솔을 줍고 있다.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당연히 단정치 않다. 그리고 전구에서 농가 아낙의 아이를 등장시켜 현실의 어려움을 한층 더 분명히 그렸다. 아이는 지금 배가 고파 농가 아낙에게 밥을 달라 조르지만 절구질은 쉽게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농촌의 현실을 아낙을 통해 사실적으로 그렸다.

그 다음 작품은 <보리가 익었다는 소식을 듣고>인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四月南風雨一鋤	4월 남풍 불고 한 호미에 비가 내리니
受明牟麥果何如	모두 영근 보리와 밀은 과연 어떠한가

13) 尹孝寬, 『竹麓遺稿』 卷1, <田婦詞>

傳聞大野黃雲滿
多暴人情有賴¹⁴⁾

큰 들에 누린 구름 가득하단 말 들리니
사나웠던 인심이 모두 누그러지리라

이는 보리가 익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작품이다. 전구 원문의 ‘황운(黃雲)’은 바로 보리를 말한다. 보리가 익으면 마치 황금물결이 인 듯하기 때문에 ‘황운’이라 말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보릿고개’란 말이 있다. 이는 곧, 지난해 가을 수확한 식량이 모두 떨어지고 하곡인 보리가 여물지 않은 음력 4~5월의 춘궁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작품은 이를 연상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보리타작을 보며> 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隨手竹竿自俯仰
指揮五子打黃雲
飛空墮地頻升降
日午槐陰落穗紛¹⁵⁾

도리깨는 손에 따라 질로 올랐다 내렸다
다섯 아들 지휘하여 보리타작을 한다
허공에 날고 땅에 떨어져 자주 오르내리면
괴목의 낮 그늘에 이삭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이 작품은 보리타작을 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다. 보리타작을 할 때 쓰는 농기구가 기구에서 언급한 도리깨이다. 도리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보리타작을 하는 모습을 기구에서 그렸고, 보리타작을 하여 보리 알곡이 떨어지는 모습을 전구에서 형상화하였다. 윤희관은 비록 30년 넘는 시간 동안 벼슬살이를 했으나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탈곡하는 방법 등을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경험이 없었다면 지을 수 없는 작품이라 생각한다.

다음 작품도 농촌에서 살아가는 농부들의 삶을 그린 것인데, 제목은 <전가즉사>이다. 희학적인 요소가 있는 시로, 두 작품을 모두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天雨沉沉不辨時

비 내려 침침하니 때 분간 안 되는데

14) 尹孝寬, 『竹籠遺稿』 卷1, <聞麥熟>

15) 尹孝寬, 『竹籠遺稿』 卷1, <觀打麥>

午簷惟有老鷄知	처마 밑 늙은 닭만이 오후를 알려준다
田家夕食謀諸婦	농가의 아낙네들 저녁 반찬 의논할 새
笑指籬籬點點垂 ¹⁶⁾	웃으며 주렁주렁 매달린 울 박 가리킨다

②

丁男刈稻雨中廻	벼를 베는 힘센 머슴 비 맞고 돌아옴에
分付家人摘手催	집사람에 분부 내려 빨리 따라 한다
小婦炒鑪忙下杵	작은 색시는 솥에 찌 절구질 바빠 하니
謀糠黃犬近徘徊 ¹⁷⁾	누렁이는 겨 탐해 근방에서 배회한다

작품 ①에 근거해보면, 현재 비가 내려 침침한 상황이다. 때문에 어느 때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데, 그때 마침 닭이 울어 오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농가의 아낙들은 이제 저녁 반찬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작품 ② 역시 농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작품 ①보다 역동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진구와 절구를 통해 저녁밥상을 차리기 위해 바빠 움직이는 농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묘사한 점이 역동적이다.

3) 현실비판시를 통한 애민의식의 발현(發顯)

윤효관이 지은 현실비판시로는 <흉년을 한탄하다 [嘆荒]와 <순산군행 [巡山軍行] > 등이 있다. 우선 <흉년을 한탄하다> 두 작품 모두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儉歲重回乙亥春	흉년에 올해년 봄이 다시 돌아오니
彼蒼胡忍盡劉民	저 하늘은 어찌 차마 백성을 다 죽이는가
餓孍轉壑人誰瘞	굶어 죽음에 되레 그 뉘 구령에 묻어주고
癘網彌天鬼不仁	병마가 하늘에 차니 귀신도 어질지 않네

16) 尹孝寬, 『竹麓遺稿』 卷1, <田家卽事> 1.

17) 尹孝寬, 『竹麓遺稿』 卷1, <田家卽事> 2.

督稅官差鞭撻急	세금 재촉한 관리들은 매질을 급히 하고
絕糧村婦涕淚頻	양식 없는 촌 아낙들은 자주 눈물 흘린다
史鄉惟有風流足	고을 아전들만 만족할 풍류 생활 있어
灑酒椎牛泛海濱 ¹⁸⁾	쏟은 술 쌓인 고기가 바다 같이 떠다닌다

②

飢荒癘疫荐相連	굶주림과 병마가 거듭 서로 연이으니
哀我民生正可憐	슬프다, 우리 백성 삶은 진정 가련하다
十里丐兒三見斃	열 마을 거지 아이들 세 명은 죽고
千村病室一無全	천 마을 병실엔 온전한 사람 한 명 없다
山川滌滌農何望	산천이 메마르니 농부들 무얼 바랄까
邑里皇皇命孰延	읍리는 허둥지둥 그 누가 연명하리오
索賦官人嚴猛虎	세금 찾는 관원은 사나운 범처럼 엄하니
牽衣頓足足于天 ¹⁹⁾	옷 끌고 발 구르며 하늘에 하소연한다

작품 ① 수련 1구에 근거해보면, 이 작품은 을해년(1815, 순조15) 봄에 지었다. 시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도 지난해 흉년이 들었고, 그 여파가 이듬해 봄에 까지 미친 것이다.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한 병마에 시달린 사람들이 하늘에 찰 정도로 많다. 그런데도 관리들은 세금을 독촉하며 매질을 하니 양식이 없는 농가의 아낙들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다. 흉년으로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반면 아전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말하며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였다. 작품 ②도 앞 작품과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어 힘든 농촌의 현실을 가감 없이 그대로 읊었다. 특히, 수련 2구에서 “슬프다, 우리 백성 삶은 진정 가련하다”라고 말하여 윤희관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나타내었다. 즉, 애민의식이 발현된 부분이라 생각한다.

한편, 『조선왕조실록』 순조 15년(1815) 10월 12일 자의 “김계온(金啓溫)이 상소하여 호남 연해 고을에 흉년든 상황을 아뢰고 세금 감면을 청하다”라는 기사

18) 尹孝寬, 『竹麓遺稿』 卷1, <嘆荒> 1.

19) 尹孝寬, 『竹麓遺稿』 卷1, <嘆荒> 2.

내용을 보면, 1809년(순조9)부터 시작한 흉년이 1815년까지 이어져 인구수가 줄고, 그로 인해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는 현실을 말하였다. 김계온은 당시 전라도 관찰사로서 호남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나라에 요청한 것이다. 윤효관의 위 시 ①의 수련 1구에서 “흉년에 올해년 봄이 다시 돌아오니”의 ‘올해년’은 바로 1815년을 가리키니, 『조선왕조실록』 기록과 대비했을 때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작품은 제목이 <순산군행>이다. 잡언고체시의 형식을 빌렸는데, 소재가 특이하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落山推窓倚門東 寥寥寂寂萬念空 有卒名巡山 驅來兩兒立庭中 大兒年可十一二 小兒尚幽沖 各自櫛捋三四枝 囁嚅股慄泣無窮 自言兒罪當萬死 活人元是長者風 淫霖十日不舉火 病濕高堂飢老翁 人情到此孰不憂 所以忘禁披暮叢 我聞其言心惻然 匍匐入井幾彼童 不有困窮寧有此 爲親投畏情或同 巡山軍巡山軍 今汝所爲誠可憫	산 낙엽 창에 쌓였는데 문 동쪽에 기대니 쓸쓸하고 적막하니 온갖 생각 없어진다 이때 산을 순찰하는 군졸 있어 두 아이 몰고 와서 마당에 세운다 큰 아이 나이는 열한두 살이고 작은 아이는 아직은 어리다 각자 가시나무 서너 가지 가지고 말 못하고 덜덜 떨며 한없이 울고 있다 아이들 스스로 말하길 “죄 지어 마땅히 만 번 죽어야 하나 사람 살린 것은 원래 어른의 풍도입니다 10일 간 장마에 불도 때지 못하고 습기에 병든 고당엔 굶주린 늙은이 있습니다 인정이 여기에 이르면 그 뉘 근심치 않겠습니까 금지를 잊고 저물녘 숲을 헤쳤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측은했나니 옆드려 우물에 들어간 아이들 그 몇일까 곤궁치 않으면 어찌 이런 일 있을까 아버이 위해 두려움 모르는 마음은 같아라 순산군이여 순산군이여 이제 네들이 하는 짓은 진정 슬프다
---	--

此山幅員數十里
 四方人居列碁子
 日日所犯知幾何
 舍厥豺狼問孤豕
 顏情之厚何足論
 看他小事尙如此
 況當百里字牧責
 虐民罔上較何似
 剛則吐柔則茹
 富者生貧者死
 因放兩兒送
 兩兒翩翩不勝喜²⁰⁾

이 산의 넓이는 수십 리요
 사방에는 인가가 바둑처럼 벌려졌다
 범법자가 날마다 그 몇인지 아는가
 저 시랑이는 놓아주고 외론 돼지에게 문초하네
 두터운 안면의 정을 어찌 따질 수 있을까
 이러한 작은 일도 오히려 이 같거늘
 하물며 백 리 맡은 수령 책임음
 백성을 학대하고 위를 기망함과 어찌 비교할까
 강하면 토하고 부드러우면 먹으니
 부자는 살고 가난한 사람은 죽는다
 인하여 두 아이를 돌려보내니
 두 아이 훨훨 기쁨 이기지 못하는구나

순산군은 삼림을 순찰하던 군졸(軍卒)을 말한다. 이 작품은 시 제목 옆에 적힌 주석에 따르면, 윤희관이 의릉재(懿陵齋)에서 숙직하고 있을 때 직접 겪은 일화를 시로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이 작품에 대해 승지 홍인호(洪仁浩)가 평가하기를 “시사(詩史)에 편집해 넣을 만하다. [可編詩史]”라고 말하였는데, 그만큼 문학적 완성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 내용은 이야기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스토리텔링도 가능하다. 어느 날 윤희관이 의릉재에서 숙직을 하고 있을 때 순산군이 두 아이를 몰고 마당에 세웠다. 큰 아이는 대략 열한두 살 정도 되었고, 작은 아이는 어리게 보였다. 순산군에게 잡혀 왔으니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때문에 말도 못하고 덜덜 떨며 한없이 울고 있었다. 그러면서 잡혀온 이유를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말을 하였다. 그 말 속에 ‘어른의 풍도’가 나온다. 곧, 비록 어린 아이지만 본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근원은 어른에게 있다 말한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말을 들은 윤희관은 “마음이 측은했다”라고 말하였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아이들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윤희관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다.

20) 尹孝寬, 『竹麓遺稿』 卷1, <巡山軍行>

곤궁한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측은할 뿐이었다. 그래서 이제 순산군을 나무란다. “저 시랑이는 놓아주고 외론 돼지에게 문초하니”라는 말을 함으로써 진정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풀어주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꾸짖는 현실을 꼬집어 비판하였다. 또한 “강하면 토하고 부드러우면 먹으니, 부자는 살고 가난한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힘이 약한 일반 백성들만 당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4) 풍물시를 통한 호남 특성 현현(顯現)

윤효관이 지은 풍물시로는 <승평곡 [昇平曲]> 16수, <씨름을 보다 [觀角抵]>, <돌싸움을 보다 [觀石戰]> 2수, <호남시 [湖南詩]> 등이 있다. 우선 <승평곡> 첫 번째 작품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昇平自古佳麗地	예로부터 승평은 아름다운 땅이라
山秀鸞鳳水如藍	산은 난봉같이 수려하고 물은 쪽빛 같다
池池磅礴大都護	땅과 연못 광대하여 대도호 이루었고
物色繁華小江南 ²¹⁾	물색은 변화하여 소강남이라 부른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윤효관은 그의 나이 60세 때 순천에 유배 명을 받고 갔다. ‘승평’은 순천의 옛 이름이다. <승평곡>은 순천의 승경을 주로 읊은 풍물시인데, 인용한 위 시는 그 첫 번째 작품이다. 주로 순천의 산과 물의 형세에 대해 언급했으며, ‘소강남’이라 지칭한다는 말을 하였다.

다음에 볼 작품은 <돌싸움을 보다>이다. 이 작품은 윤효관이 순천 유배 시절 순천에 소재한 누정 환선정(喚仙亭)에서 돌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묘사한 것으로, 2수 중에서 한 작품만 들어본다.

摩拳擦棒兩邊排	주먹과 장대 문지르며 양 곁으로 갈라서
---------	-----------------------

21) 尹孝寬, 『竹麓遺稿』 卷1, <昇平曲> 1.

橋北橋南楚漢開	연자교 북쪽과 남쪽으로 초한전이 열렸네
一蹙呼朋天地裂	한번 찡그려 친구 부르니 천지가 찢어지고
三番唱喏海山推	세 번 응답하니 해산이 무너질 듯하다
進時猛虎驅羊去	진군할 때 맹호가 염소를 몬 것 같고
退處長風捲浪來	후퇴한 곳 장풍은 물결 걷는 듯하다
闔關中間飛石勢	진을 닫고 여는 사이 돌은 날아다니니
從何先破健兒腮 ²²⁾	어느 팀이 먼저 건아의 뺨을 부술까

환선정은 1544년 순천 부사 심통원(沈通源)이 순천 읍성 동문 밖 동천(東川)가에 지은 누정으로, 사정(射亭) 기능과 함께 순천 부사의 정무처이자 휴게처 용도로 활용되었다. 돌싸움은 민속놀이 중 하나로, 일종의 돌팔매질을 하여 이기고 지는 것을 겨루는 편싸움을 말한다. 윤효관은 환선정에서 순천 사람들이 하는 돌싸움을 보았는데, 이 시는 민속놀이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민속적인 의의가 있다. 우선 수련에서 두 편으로 가르는 모습을 말하였다. 연자교(燕子橋)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었다는 말을 한 것이 구체적이다. 순천 읍성 남문 앞의 서쪽과 동쪽으로 흐르는 옥천(玉川)이 있고, 그 옥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연자교이다. 이어 함련을 통해 호령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천지가 찢어지고”, “해산이 무너질 듯하다”라고 말하여 싸움 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련에서 진군할 때의 모습과 후퇴할 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씨름을 보다」도 환선정에서 순천 사람들이 씨름을 한 것을 보고 지은 작품으로, 「돌싸움을 보다」와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의 민속놀이를 알 수 있는 시이다.

다음 시는 <호남시>이다. 이 작품은 총 60구로 이루어진 장편고체시이다. 단가와 가사 작품 중에 <호남가>가 있는데, 그와 견줄 수 있는 작품이다. 전체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 지명은 밑줄 그어 굵게 표시하였다.

22) 尹孝寬, 『竹麓遺稿』 卷1, <觀石戰>

湖南是雄藩
 邑有五十七
 萬仞高山嶂
 千堞長城屹
 人心本和順
 民俗自興德
 爲治皆任實
 朝野庶同福
 彬彬綺羅州
 泰仁皆厚俗
 求禮尙節文
 旌義分淑慝
 鎮安浮囂民
 昌平禮義國
 順天治化敷
 大靜吾東域
 聲教屹海南
 一路民咸悅
 人物太淳昌
 樂安歌烟月
 示陰興陽義
 務安君子節
 潛躍龍安所
 靈光鍾人傑
 摺紳光州郡
 扶安我列邑
 陟彼白雲峯
 徒依靈岩立
 遠遠長水勢
 重重益山岳
 礪山依漢盟

호남은 웅장한 번진이라
 읍은 57개가 있다
고산은 만 길이나 솟고
장성은 천첩으로 높다
 인심은 본래 화순이요
 민속은 자연 홍덕이라
 다스려 모두 입실하니
 조아가 거의 동복이라
 빛나는 비단 나주여
태인 하니 모두 풍속 좋네
구례 하니 예절이 높고
정의 하니 사특이 없어진다
 들뜬 백성들 진안하니
 예의의 나라 창평 하도다
순천으로 다스리니
대정 함은 우리나라일세
해남에 소문난 교화 높아
 길거리 백성들 함열한다
 인물은 크게 순창하고
낙안에서 연월을 노래한다
 음이 보이면 홍양 뜻 있어
무안은 군자의 절개라
용안에 잠겼다 뛰니
 인걸들이 영광으로 모인다
광주군의 벼슬아치들은
 우리 열읍의 부안이라
 저 흰 운봉에 올라
 홀로 영암에 비겨선다
 멀고 먼 장수의 기세여
익산 산악 겹겹이로다
여산은 한맹에 의지하고

井邑體周易
 沃野田萬頃
 茂長吾民食
 灌溉通金溝
 臨陂萬民力
 沃溝佳云滿
 金堤動秋氣
 南原芳草色
 特立古阜木
 丹楓盡錦山
 光陽最宜夕
 繭絲出綾州
 茂朱爲公服
 玉果南土產
 珍山名可合
 千丈龍潭古
 潭陽可通楫
 滿載珍島貨
 康津自利涉
 一帆濟州飢
 高敞天心濶
 平廣完全州
 何必谷城設
 寶德非寶城
 威平在廟策
 南平北自安
 長興我社稷
 嗟彼一珍原
 邑號何時復²³⁾

정읍은 『주역』 본받았다
 비옥한 들판 만경이어
무장하니 우리 백성들 식량이라
 관개수가 통한 곳은 금구요
임피하니 만백성의 힘이라
옥구에 아름다움이 가득하니
김제엔 추기가 움직인다
남원에 방초색 있고
고부에 우뚝 선 나무여
 단풍 드니 다 금산이요
광양의 좋은 저녁이라
능주의 고치실 내니
무주하여 공복을 만드네
 남쪽 토산은 옥과요
진산은 이름에 합당하다
 천 길의 용담은 예스러워
담양에 배가 통할만하다
진도 재화 가득 싣고
강진에서 큰 물 건넌다
제주에서 한 배 기민 주니
고창의 천심은 넓기도 하다
 평광함이 전주를 완성하니
 하필이면 곡성을 쌓을까
 덕 보배 삼아야지 보성은 아니니
함평에 묘책이 있어라
남평은 북쪽도 평안하리니
 우리 사직은 장흥하리라
 슬프다, 저 진원은
 읍호를 어느 때 회복할까

23) 尹孝寬, 『竹麓遺稿』 卷1, <湖南詩>

윤희관은 작품의 처음 부분에서 “호남은 웅장한 번진이라, 읍은 57개가 있다”라 말한 뒤 총 57개의 군읍의 이름을 나열하였다. 그 57개 군읍을 들면, 고산, 장성, 화순, 흥덕, 임실, 동복, 나주, 태인, 구례, 정의, 진안, 창평, 순천, 대정, 해남, 함열, 순창, 낙안, 홍양, 무안, 용안, 영광, 광주, 부안, 운봉, 영암, 장수, 익산, 여산, 정읍, 만경, 무장, 금구, 임피, 옥구, 김제, 남원, 고부, 금산, 광양, 능주, 무주, 옥과, 진산, 용담, 담양, 진도, 강진, 제주, 고창, 전주, 곡성, 보성, 함평, 남평, 장흥, 진원 등이다. 이 지명 중에 제주도도 들어갔는데, 당시 제주도도 호남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4. 지향시의 특징과 의의

이상 2장, 3장을 통해 윤희관의 삶과 한시 작품의 개략적인 내용 및 지향 의식 등을 살폈다. 윤희관이 지은 한시 작품 중에 목적의식을 가진 작품 유형으로 경계시, 농촌시, 현실비판시, 풍물시가 있음을 확인한 뒤 각각 드러내고자 한 지향 의식을 살폈다. 경계시는 대체로 자손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을 지목해 지은 작품이기 때문에 ‘자손 훈육’을 지향 의식으로 드러냈다 하였고, 농촌시는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상 보고’라는 말을 하였다. 이어 현실비판시는 작품을 통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애민의식의 발현’이라 하였고, 마지막으로 풍물시는 윤희관 자신이 호남 사람으로서 호남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생각하여 ‘호남 특성 현현’이라 규정하였다. 이러한 지향 의식을 드러낸 작품은 ‘지향시’라 말할 수 있는데, 각각의 작품 유형은 또한 지닌 특징과 의의가 있다.

우선 경계시는 훈육을 목적으로 지은 작품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를 내려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윤희관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벼슬살이를 하느라 오랜 객지 생활을 하였다. 때문에 항상

고향에 있는 세 아들 사진(師鎭), 임진(臨鎭), 이진(頤鎭)²⁴의 근황이 궁금했을 것이고, 특히 그 아들들의 교육이 걱정되었을 것이다. 또한 윤효관은 침체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비롯해 자손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²⁵ 이렇듯 교육을 위해 지은 시가 바로 경계시이기 때문에 어느 작품 유형보다 지향 의식이 뚜렷하다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윤효관은 경계시를 통해 자손들을 훈육하고자 한 측면이 있었으나 다른 시를 통해 볼 때 정작 자신은 담배를 피고, 바둑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이 부분에서 행동과 말이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한다.

윤효관은 농촌시를 통해 농촌의 실상을 보고했으나 작자의 시점을 보면, 관찰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3장 2절에서 인용한 시 <시골 아낙네를 읊다>, <보리가 익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리타작을 보며>, <진가 즉사> 시의 공통점은 바로 작자의 시점이 모두 관찰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관찰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 현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바라다보고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자는 마치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인 사실을 그대로 그려 농촌의 실상을 보고하였다. 또한 농촌시 속에 등장한 농촌 사람들은 비록 배가 고프기는 하나 큰 질곡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즉, 윤효관의 농촌시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사실성(寫實性)을 드러냈다는 점을 특징으로 말할 수 있으나 농촌 현실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반면, 윤효관은 3장 3절에서 인용한 시 <흉년을 한탄하다> 작품에서는 농

24) 윤효관의 <행장>에 근거해보면, 그 세 아들의 이름은 각각 사진, 임진, 이진이다. 한편, 『죽록유고』 권1, <아들을 생각하며 [憶子]> 시의 小註에 따르면, 그 세 아들을 각각 龍, 鳳, 麟이라 하였다. 아마도 평소 부른 이름과 죽보에 올린 이름이 서로 다른 듯하다.

25) 윤효관이 침체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식을 담은 내용은 『죽록유고』 권2, <自警文>에서 볼 수 있다.

26) 윤효관이 담배를 비우고, 바둑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작품은 『죽록유고』 권1에 수록된 <담뱃대 [烟竹]>, <담배 [南草]>, <담뱃대 [烟竹]>, <담배를 빌리며 [乞草韻]>, <바둑을 두며 [圍碁]> 등이다.

촌 사람들의 고통을 드러내었다. 이 작품은 첫 번째 시의 수련 1구에서 ‘올해년’이라는 연도를 말했기 때문에 창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올해년, 곧 1815년은 윤효관의 나이 71세 때이다. 오랜 벼슬살이를 했던 윤효관은 70세 때 고향 강진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듬해에 <흉년을 한탄하다> 시를 지은 것이다. 윤효관은 이제 관료인이 아닌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농촌의 현실을 바라보고, 농촌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 것이다. 앞에서 본 농촌시와 마찬가지로 농촌의 현실을 읊은 시인데, <흉년을 한탄하다>는 격한 감정이 심하게 노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곧, 3장 2절의 농촌시는 농촌의 현실을 읊되 사실을 관찰자의 시점에서 담담히 그린 반면, 3절의 <흉년을 한탄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아울러 감정까지 드러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⁷⁾ 한편, <순산군행> 시는 특이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윤효관이 의릉재에서 숙직하고 있을 때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읊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형상화했다는 특징을 지녔다. 또한 <흉년을 한탄하다> 시와 마찬가지로 격한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곧, <흉년을 한탄하다>과 <순산군행> 시는 비록 시공간은 다르나 현실을 그대로 형상화하면서 작자의 격한 감정이 들어갔다는 점이 같다.

윤효관이 읊은 풍물시는 모두 호남 지역과 관련된다. 전남 강진을 고향으로 둔 윤효관은 어느 누구보다 호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애향심도 강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애향심은 유배지 순천에 가서도 드러나 <승평곡> 16수, <씨름을 보다>, <돌싸움을 보다> 2수와 같은 시를 지었다. 이들 작품은 19세기 초엽 순천의 민속놀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호남시>는 호남에 대한 애향심을 지명을 통해 드러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호남시>는 지명한시의 일종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전에 나온 고용준의 <남

27) 윤효관이 농촌 현실을 다양하게 형상화한 점은 위백규와 닮아있다. 위백규도 농촌 현실을 관조적으로 표현하였고, 우회적으로 표출하였으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위백규의 농촌시에 대한 논의는 박명희의 논문(『존재 위백규의 현실인식과 시적 형상화』, 『호남한시의 전통과 정체성』, 경인문화사, 2013, 237~273쪽)을 참조할 것.

정부>와 후대에 나온 가사 <호남가>의 계보를 잇는 위상을 지니고 있어 그 의의가 작지 않다 판단한다.²⁸⁾

5. 맺음말

본 논문은 윤희관의 한시에 나타난 지향 의식을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윤희관이 지은 한시 작품은 총 463제 635수가 전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635수의 한시 작품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창작한 시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윤희관이 지향하고자 하는 의식을 알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윤희관의 삶과 한시 작품에 대해 개략적인 정리를 하였다.

윤희관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출생과 학문 수련기(1~32세), 두 번째 관직생활기(33~69세), 세 번째 퇴사와 귀향(70~79세)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635수의 한시 작품을 종류별로 나눠보았는데, 칠언 절구와 칠언율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윤희관의 한시 특징으로 경계시와 농촌시, 현실비판시, 풍물시가 있다는 점을 찾았다. 이러한 시는 각각 지향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경계시는 자손을 훈육하기 위해 지었다고 보았고, 농촌시는 농촌 삶의 실상을 보고하기 위해 지었다고 보았으며, 현실비판시는 애민 의식이 드러났다 보았고, 풍물시는 호남의 지역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경계시는 교육을 위해 지은 시이기 때문에 어느 작품 유형보다 지향 의식이 뚜렷하다 말하였고, 농촌시에 나타난 공통점으로 작자의 시점이 모두 관찰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즉, 윤희관이 관찰자에 머물고 있다는 것

28) <호남가>류의 계보와 전승 맥락에 대한 연구는 이수진의 논문(『<호남가>류 시가 작품의 전승 맥락과 <호남지방찬양시>의 발굴 검토』, 『온지논총』 65권, 온지학회, 2020, 104~108쪽)을 참조할 것.

은 농촌 현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바라다보고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흉년을 한탄하다>과 <순산군행> 시는 비록 시공간은 다르나 현실을 그대로 형상화하면서 작자의 격한 감정이 들어갔다 말하였고, 마지막 풍물시를 통해서도 호남에 대한 애향심을 드러냈다 언급하였다. 특히, <호남시>는 지명한시의 일종으로, 고종즉의 <남정부>와 후대에 나온 가사 <호남가>의 계보를 잇는 위상을 지녔다 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죽록유고(竹麓遺稿)』

김경옥, 「강진 보동마을 해남윤씨문중 고문서의 수집과 활용」, 『조선의 관리, 죽록 윤희관의 일생』, 2013,

김신중, 「남도고시가의 작품과 연구 동향」, 『한국시가문화연구』 2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2, 96쪽.

(UCI: G704-001062.2012..29.008)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선의 관리, 죽록 윤희관의 일생』, 도서출판 무돌, 2013.

박명희, 「존재 위백규의 현실인식과 시적 형상화」, 『호남한시의 전통과 정체성』, 경인문화사, 2013, 237~273쪽.

尹宇鉉, 번역본 『죽록유고』, 낭주인쇄사, 1977.

이수진, 「〈호남가〉류 시가 작품의 전승 맥락과 〈호남지방찬양시〉의 발굴 검토」, 『은지논총』 65권, 은지학회, 2020, 104~108쪽.

정익섭, 「죽록 윤희관의 纛車歌攷」, 『낙은강전섭선생화갑기념논총』, 창학사, 1992, 141~162쪽.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3508>(검색일 : 2023년 7월 10일)

| Abstract |

Oriented Consciousness Shown In Chinese Poetry By Jookrok Yoon Hyo-Gwan

Park, Myoung-hui

Chonnam National Univ. Lecturer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oriented consciousness shown in Chinese poetry by Yoon, Hyo-Gwan(1745~1823), a literary person in Gangjin, Jeonnam, and its meaning. A total of his 636 Chinese poems with 463 themes were handed down in vol. 1 of 『Jookrokyooko』. This study gave a focus on 636 Chinese poems created to show a few purposes and intentions. It was expected that the oriented consciousness shown in Chinese poetry by a literary person in Honam area who had lived from the middle 18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would be found out.

Chapter 2 classified the poet's life and Chinese poetry. His life was roughly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birth and studying period(age of 1~32); second, government service period(age of 33 through 69); third, retirement and returning home period(age of 70 through 79). 636 Chinese poem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ypes and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ere a great number of Chilunjeolgu and Chilunyulsi poems.

Chapter 3 investigated the oriented consciousness shown in Chinese poetry by Yoon, Hyo-Gwan. Before mentioning the oriented consciousness, this study discovered that he created poems to show a few purposes and intentions; they were admonition poems, rural poems, critical poems and landscape poems.

Each of the four types of poems has oriented consciousness as follows: The poems admonished descendants, reported real condition of rural life, showed the love of the people and local characteristics of Honam area.

As his Chinese poems were usually created based on experiences, reality was inherent in them, The reality has meaning in that it was connected to the poems created by We Baek-Gyu and Jeong Yak-Yong, literary persons of the late Joseon Period. Meanwhile, Yoon Hyo-Gwan's 「Honam Poetry」 is a kind of toponym Chinese poetry and it was assumed that as it succeeded Go Yong-Jeup's 「Namjeongbu」 and 「Honamga」, words created after age, its meaning is great.

Key words : Jookrok Yoon Hyo-Gwan, 『Jookrokyuko』, Haenam Yoon Family, admonition poetry, rural poetry, critical poetry, landscape poetry.